

최남선 번역 “대양(大洋)”

一

썩놀아라. 너의, 깊고 식킴은 大洋아 -썩놀아라!
萬千雙 鯨鯨이 너의 위로 달녀간들 너를 웃지해.
사람이 或 陸地위에는 좀작난한 痕迹을 내이기하나,
그 힘이 겨오 海邊에 와서 쓰치난도다.
질편한 물위에 잇난 欠집은 모도다 네가 내인것이라,
사람의 손에난 생채기는 손톱만큼도 업서.
오죽 사람이 暫時間 비 한방울처럼 너의 깊은물에 썩러져서,
거품을 뿜으면서 애 쓰고, 棺업시, 무덤업시, 弔喪하난 鍾업시, 남몰으게 싸질새에,
저의 自體의 滅亡하난 形跡을 썩러터리난 일이 잇슬뿐이라.

二

너의 길에는 人跡이라고 업고,
너의 疆域은 사람이 掠奪할수 업난테로다.
네가 벌씩 일어나 사람을 썰치고, 그 陸地위의
破壞에 쓰난 微微한 힘을 비우스며,
너의 가슴썩으로서 그를 것어차 空中으로 치썰러,
빙글빙글 하난듯한 물사발中에서 썰고 부르짓난 그를,
그가 苟且스러운 남은 希望을 부칠만큼 갓가운 개에 썩여다가 죽여,
다시 이를 陸上에 치쳐서 누이난도다.

三

드르릉통탕 벼락소래를 내이면서, 바위사들노 치싸흔
都邑의 城壁을 문호질너, 그 帝王과 人民으로 하여곰
서울에서 벌벌벌 썰게하난 大碗口 -
泰山스 뎀이갓히 크나크게 생긴물건이 그것만든 사람저로하여곰
「海上의王」이라, 「戰爭의 主力」이란
虛入된 일흠을 부치게하난 大軍艦 -
이싸위는 다 너의 작난스감이로다.
한點 눈이나 달음업시 너의 물사결의 거품과 함씩 녹아바리난도다.
疑心잇거든 當年의 아마다를 보아라, 썩 트라알까의 戰敗艦隊를 보아라.

四

너의 沿岸은 새를 짜라 變更하난 帝國이니,
萬古에 變함업난것은 홀노 너뿐이로다.
앗시리아쓰레스아로오마카아테지 - 너의들이 다무엇이나?
이들 나라가 自由로울새에는,
너의 물사결이 이에게 勢力을 갖다주었고,
그後 自由가 업서짐에
허다한 暴君(Tyrant)을 가져왔도다.
그 沿岸이 異國인과 奴隸와 野蠻에게 征服되야서,
亡하야바린뒤에는 썩밭치 變하야 모래밭되도다.
그런데, 古今에 한갈갓도다.
오죽 變하난것은 썩노난 물사결이 눅혔다 나젓다할뿐이로다.

암만 歲月이 오래가도 너의 얼굴엔 주름이 아니잡히고,
太初에나 方今에나 그저그모양대로 울퉁불퉁 썩노난도다.

五

너는 참밝은 거울이라, 全能하신 神의 바탕이
暴風雨새에 너의 面에 비취난 거울이로다.
아모리한 새이어니 - 가만한새어니, 사나운새어니,
고은 바람에어니, 긋센바람에어니, 쏘 모진바람에어니,
南北極地에는 어름이 덥히고,
熱帶地에서는 집채갓흔물스결이 솟고 올라와,
쫓치 업도다, 참 雄大하도다 - 너는 이러한 거울이로다.(原文에는 이 말이 업스나 알기쉽게 더

함)

너는 永遠의 形象이라, 神의 寶座로다.
水中의 怪物은 너의 개흙으로 된것이며,
寒溫熱三帶에 아모대고 다 너의 威力에 降服하난도다.
너는 참 무섭도다 참 測度할수업도다.
웃독히 혼자 놀나지로 썩노난 너의 모양.

六

大洋아 -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작난으로 일삼던 젊었을새의 질거움은, 너의 가슴에 안겨서
너의 거품모양으로 압흐로 흘러 나감이러니라.
어린아해새부터, 나는 너의 언덕짜리난 물스결과 熟親하노라.
철썩철썩 언덕치난 물스결은 나에게는매우 깃븐것이러니라.
바다가 썩노라 언덕 치난 물스결이 무선운새가 잇서도,
怯내면서도 깃브게 알았노라.
대개, 나는 맞치 너의 아들이니,
여기저기 날어나난 너의 물스결에 몸을 依託하고,
當場내가 여기서 하난것처럼, 너의 갈귀에,
나의 손을 언끼까지 함이니라.

- “大洋” 전문

I

Roll on, thou deep and dark blue Ocean - roll!
Ten thousand fleets sweep over thee in vain;
Man marks the earth with ruin - his control
Stops with the shore; upon the watery plain
The wrecks are all thy deed, nor doth remain
A shadow of man's ravage, save his own,
When, for a moment, like a drop of rain,
He sinks into thy depths with bubbling groan,
Without a grave, unknelled, uncoffined, and unknown.

II

His steps are not upon thy paths, - thy fields
Are not a spoil for him, - thou dost arise
And shake him from thee; the vile strength he wields
For earth's destruction thou dost all despise,
Spurning him from thy bosom to the skies,
And send'st him, shivering in thy playful spray

And howling, to his gods, where haply lies
His petty hope in some near port or bay,
And dashest him again to earth: - there let him lay.

III

The armaments which thunderstrike the walls
Of rock-built cities, bidding nations quake,
And monarchs tremble in their capitals,
The oak leviathans, whose huge ribs make
Their clay creator the vain title take
Of lord of tree, and arbiter of war -
These are thy toys, and, as the snowy flake,
They melt into thy yeast of waves, which mar
Alike the Armada's pride or spoils of Trafalgar.

IV

The shores are empires, changed in all save thee.
Assyria, Greece, Rome, Carthage, what are they?
Thy waters washed them power while they were free,
And many a tyrant since; their shores obey
The stranger, slave, or savage: their decay
Has dried up realms to deserts; Not so thou:
Unchangeable, save to thy wild waves' play,
Time writes no wrinkle on thine azure brow -
Such as creation's dawn beheld, thou rollest now.

V

Thou glorious mirror, where the Almighty's form
Glasses itself in tempests; in all time -
Calm or convulsed - in breeze, or gale, or storm,
Icing the pole, or in the torrid clime
Dark-heaving, - boundless, endless, and sublime -
The image of Eternity! - the throne
Of the Invisible; even from out thy slime
The monsters of the deep are made: each zone
Obey thee: thou goest forth, dread, fathomless, alone.

VI

And I have loved thee, Ocean! and my joy
Of youthful sports was on thy breast to be
Borne, like thy bubbles, onward: from a boy
I wantoned with thy breakers - they to me
Were a delight; and if the freshening sea
Made them a terror - 'twas a pleasing fear;
For I was as it were a child of thee,
And trusted to thy billows far and near,
And laid my hand upon thy mane - as I do here.

- "The Ocean" 중에서

각주

1) 한국의 경우, 자유시론의 수용은 상징주의가 수용되면서 시작된 것이 통설로 되어있지만, 그 이전 최남선의 「少年」에 번역시가 소개되면서 이론보다 자유시가 먼저 수용된 것으로 김교봉·설성경 등 일련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 시가 연구」(서울: 국학자료원, 1996), pp. 103~113). 그러나 G. G. Byron의 "The Ocean"의 원시는 자유시가 아니라 영시의 전형적인 9행연(Spenserian Stanza)의 정형시이다. 이 형식은 영사에서 가장 완벽한 연형식(stanza form)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Edmund Spencer가 처음으로 "The Faerie Queene"에서 썼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다. 8행이 약강 5보격(iambic pentametre)으로 되어있고, 마지막 1행이 약강 6보격(iambic hexametre)이며, Rhyme은 aba bbc bcc이다. Edmund Spencer이후 별로 쓰이지 않다가 18세기 중엽에 그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부활되어 여러 시인들이 즐겨 사용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G. G. Byron이며, 그 시가 "Childe Harold's Pilgrimage"인데 그 안에 "The Ocean"이 들어 있고, 崔南善은 이것을 번역한 것이다.

2) 崔南善 역, 「少年」 제3권 제6권(1910. 6. 15), pp. 5~11. 영문 철자법 및 문장기호에 틀린 것이 있으나 「少年」지의 원문 그대로 살려 두었다. 참고로 영어 원문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少年」에 표기된 것이고 두 번째가 영어 원문이다. I에서 "unknelled → unknel'd," "uncoffined → uncoffin'd." II에서 "gods → Gods," IV에서 "thee. → thee -," "washed → wash'd," "savage: → savage;," "deserts. Not so → deserts; - not so," "brow - → brow:." V에서 "time - → time, -," "convulsed → convuls'd," "Dark-heaving, - boundless, → Dark-heaving - boundless," "sublime - → sublime," "Eternity! - → eternity," "made: → made;," "thee: → thee;," VI에서 "wantoned → wanton'd," delight; → delight;," "fear; → fear" 등이다.